

북스

조조·유방 등 중국 통치자들의 인사 철학

어린이 책꽂이



▲이야기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2009년 웅진주니어문학상 대상을 받은 임어진의 신작.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창작 동화로 어머니로부터 떨어져 나와 혼자서 맞닥뜨린 위기를 아이 스스로 헤쳐 나가며 성장하는 과정을 그렸다. 호랑이 때문에 돌아오는 험난하고도 신나는 이야기 모험을 떠난다. <창비·8천500원>



▲어린이 외교관 일본에 가다=일본의 과거부터 현대까지 정치, 경제, 문화, 국민성 등 참모습을 담았다. 일본의 천황과 실제인 쇼군은 어떤 사이였을까? '왜 우리나라 국보 83호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과 일본의 국보 1호 목제미륵보살반가사유상은 비슷하게 생겼을까?' 등 역사적 궁금증을 보여준다. <뜨인돌어린이·1만500원>



▲문화유산으로 보는 역사 한미당=웅진주니어 기획시리즈 1권 원시사회와 삼국시대편으로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우리나라 고대를 상징하는 역사 유물을 통해 그 예술사적 가치와 문화사적 의의를 살펴본다. 지도, 사진, 그림을 풍부하게 넣어 우리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깨칠 수 있도록 했다. <웅진주니어·1만원>



▲형제 미루나무=미래이문고 열 세번째 권으로 동화작가 우봉규씨의 신작동화다. 산골 마을에 있는 미루나무 두 그루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통해 세상은 풀이나 나무, 짐승, 자연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어야 함을 알려준다. 한 편의 연극을 보듯 생생한 대사와 절제된 그림이 여운과 감동을 준다. <미래이·8천500원>



▲눈사람이 엄마를 데려가요=그리스 동화작가 블라마스토키의 대표작으로 국제 아동도서협회의 회 영예도서상 수상작이다. 그리스인 아빠와 영국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존이 엄마 손잡고 강에서 유치원,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도 존과 다르지 않다. 다문화 가정에서 아이들이 편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싶어 하는 이야기다. <보물상자·8천500원>



▲할머니의 편지=전래동화 시리즈 '우렁각시', '도깨비' 등을 낸 배지은씨의 신작 그림동화. 할머니가 손자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으로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단한 삶과 지식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준다. <계림북스·8천500원>



▲암닭 한 마리=적은 돈에서 시작된 큰 성공=무담보소액대출, 이른바 '마이크로 크레딧'을 통해 개인의 꿈과 공동체의 희망을 일궈낸 실제 사례를 동화로 옮겼다. 아프리카 가나의 한 마을 가난한 소년이 빌린 돈으로 닭 한 마리를 사서 이를 키워내고 이후 양계농장을 만든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키다리·9천800원>

▲진화하는 지구=미국 시카고에 있는 필드박물관의 '진화하는 지구' 상설 전시 내용을 책에 담았다. 캄브리아기부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신생대까지 지구 생물의 40억 년 진화 역사와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현암사·2만원>

인물지

박찬철·공원국 지음



관대전에서 승리한 조조는 원소의 비밀 문서를 찾게 된다. 자신의 부하들이 원소와 주고 받은 편지가 담긴 이 문서함은 내부에 도사리고 있던 반역의 움직임을 색출해 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하지만 조조는 이를 문제삼지 않고, 불태워 판마음을 품었던 아랫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렸다.

반면, 유비는 방통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첫 인상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를 조그만 고을의 현령에 임명했다. 제갈량과 더불어 천하제일의 책사였던 방통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것이다.

중국 관련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박찬철·공원국씨가 함께 펴낸 '인물지'는 제왕들의 인사 교과서였던 중국 통치자들의 책 내용을 토대로 역사에 담긴 다양한 인사 정책을 설명한다.

원래 '인물지'는 조조의 인사참모였던 유소가 쓴 인재를 발굴하고, 배치하는 인사 관련 책이다. 한국 독자에게는 다소 생소한 유소는 조조의 측근인 순욱의 부하였다. '인물지'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매우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치열한 싸움 끝에 항우를 꺾은 유방은 낙양에서 연회를 베풀며 자신이 천하를 얻은 이유에 대해 "나는 장량, 소하, 한신이라는 걸출한 인재가 있었지만 항우는 범중이 있었는 데도 제대로 쓰지 못해 패했다"고 경했다.

이처럼 중국 통치자들에게 사람을 제대로 쓰는 일은 천하를 얻고 다스리는 정치의 요체였다. 당 태종은 나라를 세운 뒤 부하들에게 인재 추천을 요구했다. 하지만 승상 북덕이는 "지금 특출한 인재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며 오랫동안 아무도 추천하지 않았다.

이에 당 태종은 "군자가 사람을 쓰는 것은 도구를 다루는 것과 같아 그 장점을 취해야 한다. 자신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 어찌 세상 사람들을 모욕한단 말인가"라며 북덕이를 꾸짖었다.

인재는 조직의 내·외부에 있지만 그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부족함이 조금 있더라도 그 사람의 장점을 알아보고 쓰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또한 좋은 인재를 얻기 위한 지도자의 자세도 흥미롭다. 유방이 스스로 분석한 것처럼 장량, 한신이 그를 따르지 않았다면 유방은 천하를 통일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인물지'는 조조, 유비 등 중국 역사 속 유명 통치자들의 다양한 인사 철학을 담았다. 사진은 영화 '적벽대전'의 한 장면.

책은 이 부분에 의문을 던졌다. 유방이 특유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천하의 인재들을 모을 수 있었다. 항우는 싸워 이기면 부하들에게 '어머냐'며 거들먹거렸지만, 유방은 부하들에게 '어떻게 하지?'라고 물었다는 것이다.

인재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 유방이 리더로서의 자질을 앞섰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대를 대표하는 인재들이 모든 능력이 뛰어난 항우가 아닌, 전쟁 경험도 없는 사졸 건달 출신 유방을 선택했다. 이 밖에도 100여명에 달하는 중국 영웅들의 인사 철학 등이 책에 담겨 있다. <위즈덤하우스·2만7천원>

/오광희기자 kroh@kwangju.co.kr

깊이를 더한 섬세한 시적 감각

두근거려다

위선환 지음



2001년 '현대시'를 통해 등단한 위선환 시인의 새 시집 '두근거려다'가 나왔다. 2007년 '새매를 베껴다'에 이은 그의 네 번째 시집. 아름답고 깊이 있는 시적 구조로 서정시의 진화를 보여준 위 시인은 이번 시집을 통해 한 차원 확장된 시야를 바탕으로 밀도 높은 서정시를 보여준다. 표제작 '두근거려다' '탐진강' 연작 등 4부로 나눠 61편의 시를 담았다.

"한 번 더 쳐다보았다.//차고 어둡한 머리 위에, 구름층에, 공중에, 하늘에, 하늘 밖까지 빛기둥이 있다. 빛기둥이 받치고 선 아득한 높이가 보였다." <'두근거려다' 중>

문학평론가 최현식은 "'두근거려다'의 연대기적 상상력은 여행기를 연결 지은 노회찬 이야기꾼의 세련된 손짓보다는 여전히 떠돌기 위해 신발끈을 고쳐 매는 노마드(nomad)의 투박한 손길을 닮았다"고 말했다.

위 시인은 1960년 '용이문학상'을 수상하며 시단에 얼굴을 내밀었다. 1969년 말 이후 30년간 시 창작활동을 접었다. 2001년 북극해 지금까지 시집으로 '나무들이 강을 건너갔다', '눈 덮인 하늘에서 넘어지다' 등을 냈다. 현대시작품상, 현대시화작품상을 받았다. <문화와 지성사·7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문가 눈에 비친 북유럽 7개 도시

북위 50도 예술여행

승효상·이윤기 외 지음



도시 문화와 환경을 연구하는 단체인 '문화우리가'가 기획하고 주관한 시베리아 북유럽 여행의 기록을 담은 '북위 50도 예술여행'이 나왔다.

건축학도, 사진작가, 교사, 가수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21명이 함께 떠난 이번 여행에서 눈길을 끄는 건 여행의 길라잡이들이다. 건축가 승효상, 화가 이윤식, 소설가 이윤기씨는 각 도시에서 자신의 전문분야를 해설했고, 그 기록이 이 책에 실렸다.

여행객들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출발점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해 바이칼을 거쳐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지난다. 디자인 강국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 자연과 인공이 조화를 이룬 이상향 스웨덴 스톡홀름, 북유럽 최고의 명품도시 덴마크 코펜하겐 등 북유럽의 7개 도시는 전문가들에 의해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된다.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서서 권력과 건축의 의미를 되새기고, 스톡홀름 우드랜드 공동묘지에서는 삶과 죽음을 이야기한다. 특이한 도시의 다양한 건축물과 건축가들, 그리고 건축과 사회의 관계 등에 대해 찬찬히 들려주는 승효상씨의 해석이 돋보인다. 우리 문화 회원들이 함께 쓴 글과 사진도 실렸다. <컬처그래픽스·1만6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홈즈와 프로이트의 기발한 만남

셜록 홈즈의 7퍼센트 응애

니콜라스 메이저 지음



아서 코난 도일(1859~1930년)이 집필한 셜록 홈즈 오리진작품은 총 60편(장편 4편, 단편 56편)이다. 아류작과 패러디작품(1993년까지)을 포함하면 대략 1천800편에 이른다.

1974년 출간되자마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1975년에는 영국추리작가협회 선정 '골드 대거 상'을 수상한 니콜라스 메이저의 문체와 '셜록 홈즈의 7퍼센트 응애'이 번역돼 나왔다.

책은 1891년 4월, 홈즈의 코카인 중독증상이 심해진 것을 알게 된 홈즈의 오랜 친구 왓슨이 그의 치료를 도와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자신의 의지로는 절대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는 홈즈를 기묘한 책략을 써서 프로이트에게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왓슨. 그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홈즈와 프로이트의 독특한 추리방법과 놀라운 모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깊은 우정과 따뜻한 인간미를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홈즈와 그의 주변인물에 대한 완벽한 재현,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가공인물 홈즈와 실존인물 프로이트의 만남이라는 기발한 발상은 책이 단순한 '패스티시(pastiche 모방)'를 뛰어넘어 '절작'으로 평가받는 충분한 이유다. <시공사·1만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매. Includes contact info (062)364-8700, H.P 010-4608-3700, and a large table of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agent.